
일본의 환경사회학

환경사회학회

JAES

Japanese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일본의 환경사회학

환경사회학회 (2019 년 10 월)

일본 환경사회학 역사

일본에서 환경사회학의 시작은 196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회학적 연구의 경향은 오염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메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맞추던 시대였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1960~1970 년대 당시 일본사회가 지극히 심각한 공해 (severe environmental disruptions, kōgai) 피해 경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시기 일본사회에는 미나마타병 (水俣病, Minamata diseases) 과 이타이 이타이병 (イタイイタイ病, Itai-Itai diseases) 등과 같은 대표적 공해 피해의 사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보다 더 불행했던 것은 이러한 공해 사건들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연구자들은 때로는 피해자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는 등 상세한 사례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본에서 환경사회학은 피해자 운동이나 그들의 주관적 반응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겪은 사회적 피해와 환경 파괴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 일본에서 환경사회학의 대응은 당시 미국에서 논쟁이 진행되었던 'HEP-NEP 패러다임 (paradigm) 논쟁' 과 같은 이론 수준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일본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이 보다 긴급한 과제임을 자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80 년대 후반 환경 파괴에 관심을 가진 일본 사회학자들이 하나의 심포지엄으로 결집하게 되면서, 환경 연구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교류의 성과로서 현재 환경사회학회 전신이 되는 비공식적인 (informal) 연구회 '환경사회학연구회' 가 1990 년에 결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일본 환경사회학의 선구자였던 이이지마 노부코 (飯島伸子, IIJIMA Nobuko) 교수 (1938 년 출생 ~2001 년 사망) 가 초대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일본 환경사회학회 현황

일본 환경사회학회는 환경사회학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자 비영리 단체이다. 1992 년 창설 당시 53 명의 멤버로 시작되어, 2019 년 3 월말 현재 회원 수는 696 명으로 환경사회학 관련 학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 라 할 수 있다. 학회 회원들은 여러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배경도 역시 다양하다. 연구자들을 물론이거니와 환경 관련 영역의 교사, 대학원생, 실무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일본 환경사회학회는 매년 두 차례의 '학술대회 (세미나)' 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사회학 영역 전문 잡지로는 세계 최초인 『환경사회학연구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Sociol-

ogy)』를 지속적으로 간행해 오고 있다.

사업 개요

1. 학술대회 개최 (연 2회)
춘계 학술대회 (1박 2일) 심포지엄, 연구 발표 외 ‘필드 트립 (field trip)’ 을 실시
동계 학술대회 (한나절 정도) 심포지엄, 연구 발표
2. 연구회 개최 (부정기)
3. 기관지 『환경사회학연구』 간행
4. 뉴스 레터 발행 (연 2-3회, 별책으로 「회원 저작 목록」 작성)
5. 메일 매거진 발행 (수시로)
6. 홈페이지에서 회원 명부 등 정보 제공 (<http://www.jaes.jp/jpmdb/>, * 열람에는 ID·PW 필요)

학술대회와 기타 활동

매년 두 차례 개최하는 학술대회 (학회) 는 여러 분야의 회원들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기획하는 ‘특집 주제’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발표 내용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학술대회 특집 주제들로는 에코 투어리즘 (eco-tourism) 과 커뮤니티 (community) 의 재생, 환경운동의 뉴 웨이브 (new wave), ‘커먼즈 (commons)’ 와 환경, 환경정책 형성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 참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유기농업, 미나마타병 (水俣病), 삼림 보전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봄에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현장 학습’ (익스커션, excursion) 으로 유명하다. ‘현장 학습 (답사)’ 은 환경 파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 ‘현장’ 에서 회원들이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 학습이 개최된 대표적 장소로는 아시오구리광산 (足尾銅山, Ashio copper mine), 비와호 (琵琶湖, Lake Biwa), 아오모리현 시라카미 산지 (白神山地, Shirakami Mountains) 미나마타 (水俣, Minamata), 니가타 (新潟, Niigata), 나가노 (長野, Nagano) 의 폐기물 처리 시설, 이와테현 (岩手県) 구즈마키 (葛巻, Kuzumaki) 등이 있다.

일본 환경사회학회는 해외의 연구자들과 학술 단체들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다. 1993년에는 ‘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환경 문제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problems in Asian Societies)’ 라는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01년 세계사회학회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ISA) ‘환경과 사회’ (Research committee 24, RC24) 가 주최하는 ‘교토 (京都) 환경사회학 컨퍼런스 2001’ 에 적극 협력했다. 2014년 ISA 요코하마 (横浜) 대회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사회학’ 이라는 주제로 사전 회의 (preconference) 를 기획해서, 전세계의 환경사회학자들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학회 내에 ‘국제교류위원회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를 정식으로 설치하고,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동아시아환경사회학 국제 심포지엄’ 은 2008년 도쿄 (東京), 2015년 센다이 (仙台) 대회로 일본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2008년 베이징 (北京), 2009년 타이완 (台灣) 신주 (新竹), 2011년 한국 부천 (富川), 2013년 중국 난징 (南京), 2017년 타이완 타이베이 (臺北) 에서 각각 개최 및 운영에 협력해 왔다.

한편 일본 환경사회학회는 일본 내 여러 사회과학 분야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2000년 이후 환경문제와 관련 분야인

‘환경경제·정책학회 (The Society for Environmental Economics)’ 및 ‘환경법·정책학회 (The Jap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와도 협력을 통해,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공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학회지 『환경사회학연구 (Journal of Environmental Sociology)』

환경사회학회지 『환경사회학연구 (연간)』 은 1995년에 창간되었다.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왔듯이, 그동안 발간된 저널 『환경사회학연구』 도 역시 환경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을 폭넓게 다뤄왔다고 할 수 있다. 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매 호별로 ‘특집 논문’ 을 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회지 논문들은 ‘일본어’ 로 게재되고 있으나, 논문 별로 ‘영어 초록’ 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 제 1 호 (1995) 환경사회학의 시선 (perspectives)
- 제 2 호 (1996) 환경사회학의 필드: ‘현장’ 에서 배운다
- 제 3 호 (1997) 커먼즈 (commons) 로서의 숲·강·바다
- 제 4 호 (1998) (1) 환경 NGO 와 온난화방지구도회의, (2) 환경운동과 NPOs (민간비영리조직)
- 제 5 호 (1999) (1) 지역 환경 재생의 사회학, (2) 지역에서 환경 재생을 목표로
- 제 6 호 (2000) (1) 공해문제에 대한 시점, (2) 폐기물 처리의 법제화: 그 의의와 사회적 영향
- 제 7 호 (2001) (1) 환경정책과 환경사회학, (2) 환경파트너십의 현 상황과 과제: 환경정책의 현장에서
- 제 8 호 (2002) (1) 에너지 전환의 사회학, (2) 에너지 전환의 현장에서
- 제 9 호 (2003) (1) 농업과 생활의 담론 (discourse), (2) 농업과 생활의 현장에서
- 제 10 호 (2004) 환경사회학의 새로운 전개
- 제 11 호 (2005) 환경을 둘러싼 정당성 / 정통성의 논리: 시간·역사·지역
- 제 12 호 (2006) 세계유산
- 제 13 호 (2007) 시민 조사 (Civic Research) 의 가능성과 과제
- 제 14 호 (2008) ‘야생생물’ 과의 공존을 생각한다
- 제 15 호 (2009) (1) 환경 거버넌스 (governance) 시대의 환경사회학, (2) 동아시아 환경사회학의 도래
- 제 16 호 (2010) 재해: 환경사회학의 새로운 시각
- 제 17 호 (2011) 순환형 (Sound Material-Cycle) 사회의 형성과 환경사회학
- 제 18 호 (2012) 환경사회학에 있어서 ‘피해 (Damage)’ 란 무엇인가
- 제 19 호 (2013) 복합 과혹 (過酷) 재해 (Severe Compound Disaster) 에 대한 응답: 가해·피해의 관점에서
- 제 20 호 (2014) 환경사회학의 돌파 (breakthroughs)
- 제 21 호 (2015) 환경사회학의 스코프 (scope): 환경의 시간 / 사회의 시간
- 제 22 호 (2017) (1) 환경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2) 농업의 다양한 전개
- 제 23 호 (2017)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 (interaction): 동식물과의 공재 (共在) 에서 생각한다
- 제 24 호 (2018) 환경사회학과 ‘사회운동’ 연구의 관계: 지금 환경운동연구가 가야할 길

회장 및 사무국장 (2019년 ~2021년)

[회장] 이노우에 마코토 (井上真·INOUE Makoto, 와세다 (早稻田) 대학교)
[사무국장] 하마모토 아즈시 (浜本篤史·HAMAMOTO Atsushi, 도요 (東洋·Toyo) 대학교)

환경사회학회 사무국 (영어 / 일본어 주소)

The Japanese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JAES)
Academy Center,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ing Company
358-5, Yamabuki-cho Shinjuku-ku, Tokyo, 162-0801, Japan
アカデミセンター (株) 国際文献社内 環境社会学会事務局
〒162-0801 東京都新宿区山吹町 358-5
홈페이지 <http://www.jaes.jp/> (일본어)
http://www.jaes.jp/jaes_en/ (영어)
이메일 (E-mail): jaes-post@bunken.co.jp